

마무리 변론: “여성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Hans-Jörg Ronsdorf · 2021년 5월 · 2026년 10월 개정

한 자매가 저에게 이 문제는 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녀들과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존엄과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자인 저는 이 주제 전체를 남성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여성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계적·종교적 구조(상호보완주의)가 많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다치게 하거나 무너뜨렸을까 봐 염려합니다. 제 책에 대한 몇 안 되는 반응들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평등한 사회에서 자라면서도 교회 환경에서는 고대의 성 역할 모델로 “가르침을 받는”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몇 가지 (금지된)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여성이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끌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은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흔히 이런 구조와 규칙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성경의 진리로 여기며, 이런 주장들에 대해 스스로 더는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진리를 깨닫기 위한 건강한 씨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히 이런 깨달음이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도전받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주제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주제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 자 한 자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제목의 물음은, 제가 제 책(제목: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과 여러 글로 이런 (“페미니즘적인”) 물음들을 거듭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거의 짜증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제 생각에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려는 것, 또는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가정에서 함께 일하고 자기 은사를 펼칠 일과 기회가 이미 아주 많으니,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이미 정해 준 대로 각 사람에게는 자기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면, 이것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두세 가지 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여성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는 물음 뒤에는, 여자는 아담을 위한 (복종하는) 도움으로 지음을 받았고 위계적으로 그에게 딸리고, 그 아래에

있으며, 그다음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모든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이 겪는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흔히 알아차릴 수 없지만, 안에는 깊이 숨겨진 불안,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이 그 자체로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미화된 율법적인 경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나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런 시각은 주 안의 많은 자매를 괴로운 물음과 자기 회의 속에 남겨 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들에게 주입되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원하셨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완전하시다면, 왜 여성들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고, 교회에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선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적어도 신약성경에서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는 알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남자가 약자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어떤 남자들의 머릿속 생각으로는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열등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주제를 두고 감정이 그토록 격해지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성경에 대한 신실함이라기보다, 자신의 지도자 역할, 곧 머리 됨이 의문시되는 데 대한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무의식 속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왔다면, 이 깨달음은, 만일 찾아온다면, 지진과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동생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길은 생명으로 이끎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저는 이토록 감정이 격하게 실린 주제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인격, 그분의 신성, 그분의 구속 사역 같은 주제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해도 되느냐는 물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세히 살펴보고 문맥을 고려하며 성경의 크고 온전한 그림까지 고려하면, 바울은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합니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이 주제 전체를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두(!) 구절을 통해서만 봅니까? 다른 중요한 교리 문제에서도 이렇게 두 구절만으로 좁혀서 성경을 읽고 판단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그러진 가르침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자료를 서로 건강하고 납득할 만한 관계 속에 두고 저울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 건강한 가르침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읽게 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분, 곧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요 5:39).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경은 여성들을 자유로 이끄신 분, 배우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예배하도록 이끄신 분을 증언합니다.

여성에 관한 성경의 전체 그림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시다. 잘못 이해된 바울의 두 마디 말로 그 그림을 해석하지 맙시다.

직감

많은 여성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볼 때,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끌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성들과 달리 바로 그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기셨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아내들이 불 속에서 밤을 꺼내는 고통을 떠맡습니까.

그것이 제 책에 대한 반응들에서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엄청나게 큰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큼니다.**

물론 저는 이런 위계가 사랑 안에서 실천되는 결혼 생활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알 수 있는 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계가 옳고 거룩하다는 증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돌아간다는 이유로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모든 왜곡과 일그러짐을 뿌리 뽑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그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박혀 있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21세기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지나간 20세기와 19세기의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엡 5:25)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 잘못되고 차별적인 역할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내어 주고 열어 줄 것입니다.

여성 문제는 사실 깊은 의미에서 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위계적으로, 때로는 가부장적으로 읽는 방식에 대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은 성경 해석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그것이 자기들만의 전문 분야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자기 과대평가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여성들의 수많은 은사가 잊히고, 억눌리고, 꺼지고, 간과되고, 약해졌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살전 5:19)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남자들입니다. 여성들은 거기서 발언권이 없고, 있다 해도 남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모임에서 아내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은 교회의 현대화(공간과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에 발맞추는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 대한 신실함이며, 그것이 곧 성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여성 문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자면, 여성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현대화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신학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 그런 일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무엇보다 주 안의 자매들)이 직접 관련되어 있고, 각자의 시각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과 가정에서 삶을 강하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논쟁, 오직 이의 제기, 오직 예언자적인 외침만이 이 주제를 새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건설적인 토론이 없으면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분리의 이유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높은 감정의 수위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기 쉽고, 그것은 흔히 갈라섬과 분열과 분리로 끝납니다. 한쪽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일이, 다른 쪽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을 견디는 것은 한동안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각 교회의 관행이 어떠하든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을 견디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견디십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시지는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긴장 속에서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는 중간 길을 합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주제에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갈라섬은 대개 나뉩니다. 그러나 타협도 나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삶에는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일어나 자기 길을 알아보고, 잘못 이해된 복종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큰 교단들에는 깨어나서 성별 문제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호세아 8:7과 함께 말합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두리라.**

Nice Girls Don't Change the World – 참된 말입니다(착한 소녀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린 하이벨스(Lynne Hybels)의 2005년 책 제목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굳어져서 건드릴 수 없는 진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확성기를 들고 이에 맞서 일어서는 것이 충분히 마땅합니다. 구원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진리들에 대해서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선택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과 밝음과 진리 앞에서, 우리 남녀 모두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들의 깨달음 때문에, 여자들은 이른바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큰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고,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지금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 나서는 데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교회 역사에서 용감한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남성들이 거듭거듭 일어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독교의 모든 운동과 흐름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데, 용감하고 기도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과 지금

영원 속에서는 이 주제가 더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비난이나 억측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저 형제와 자매 같을 것이고, 위계와 일방적인 복종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어그러진 창조 질서에 속한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우리에게 달린 만큼,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된 이 새 창조의 자유와 능력을 살아갑시다!